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11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7년 8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2. 제안이유

- 가.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8월 7일부터 6차에 걸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복지관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 시설규모 : 연면적 1,857.15 m^2 (지상1층~3층)
- 개관일 : 2002. 3. 28.
- 수탁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14. 8. 7.~2017. 9. 24.(6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25. ~ 2020.9.24.)
- 위탁업무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교육사업(노동인권, 노동법, 성인지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18년) : 120,000천원(시설 관리비)
 - ※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

- `00.10.05.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복지공간 확충건의(시장면담)
- `01.08.07. 건물임대차계약 체결(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3.21.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고용68100-413)
- `02.03.28. 근로자복지관 개관(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8.07.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05.08.07. 근로자복지관 1차 이전(중구 예관동 70-27, 747 m^2)
- `08.08.07. 근로자복지관 2차 이전(서대문구 충정로2가 78, 1,200 m^2)
- `12.02.22. 근로자복지관 3차 이전(은평구 녹번동 5 18동, 1,857.15 m^2)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계약 1차 : `02.08.07 ~ `04.08.06(2년)
 - 민간위탁계약 2차 : `04.08.07 ~ `05.08.06(1년)
 - 민간위탁계약 3차 : `05.08.07 ~ `08.08.06(3년)
 - 민간위탁계약 4차 : `08.08.07 ~ `11.08.06(3년)
 - 민간위탁계약 5차 : `11.08.07 ~ `14.08.06(3년)

- 민간위탁계약 6차 : `14.08.07 ~ `17.09.24(3년)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 조직 인프라 확보,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 복지관”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강북 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6차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1)에 따라 조례안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나. 강북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은평구 녹번동에 강북근로자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및 복지관의 운영 등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운영 중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행정사업 등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함.

〈강북 근로자복지관 개요〉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84
- 시설규모 : 1,857.15 m^2 (지상 3층)

층별	면적(m^2)	용도
지상 1층	683.1	노동단체 사무실, 전기실, 기계실 등
지상 2층	683.1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실, 대강당(교육실) 등
지상 3층	490.95	노동단체 사무실, 기계실 등

- 인력현황 : 25명 (임원 3, 팀장 6, 사원 16)
- 운영내용
 - 서울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교육 및 각종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운영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회의공간 제공
 - 기타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권리구제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진행

-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1,219건의 노동상담 및 다양한 노동관련 진정·고소 등 법률지원,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의

운영비 등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상세한 운영실적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참조

- 시는 매년 강북근로자복지관에 1억 2천만원의 민간 위탁금을 지원중이며, 지원한 민간위탁금은 복지관 건물의 관리비명목으로 사용하였음.

〈강북 근로자복지관 위탁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민간위탁금	120,000	114,637	120,000	91,622	120,000	61,232	10,000천원×12월 (월 관리비)

- 최근 3년간 강북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에 대한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현재 강북 근로자복지관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의 관리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현재 관리비에 유지·보수비용 미포함),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조치하였음.
- 한편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현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건물이전을 요구받은 상황으로, 마포구 아현동에 소재한 (구)한국 상·하수도협회 자리에 이전을 추진중임.

※2017년 8월 현재, 증축범위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임.

- 92년 개관 후 현재까지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는 반대로,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총 3차례에 걸쳐 건물을 이전하며 운영하고 있어, 시 소유건물로의 이전을 통해 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시는 마땅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3년째 편성한 예산을 불용, 명시이월시킨 바, 이전부지가 정해진 만큼 빠른 이전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동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강북근로자복지관의 현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노동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노동관계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15년째 위탁 운영중으로, 최근 3년의 위탁기간동안 노동법률전화상담 8,560건, 노동자 법률학교 총 28회, 학생노동인권교육 총 70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양호한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수탁기관인 민주노총에서 건물 관리비용 이외의 복지관의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해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시는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북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